

(사)한국포장협회
신년 하례회 개최

성장정책 아래 업계 발전 기대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윤영욱)는 지난 달 11일 서울 팔래스호텔 로얄볼룸에서 신년 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회에서 윤영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해는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고초를 겪어야 하는 인내의 한해였을만큼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회고하면서 “올해도 어려움이 예견되기는 하지만 정부차원의 성장위주 정책이 활발해 지는

만큼 심리적으로나마 내수경기는 살아날 것”이라고 전했다. 윤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회원사들에게 작은 부분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업계 단합을 통한 발전을 꾀했다.

한편 이날 신년 하례회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문건 원장을 초빙 “2008년도 우리 경제 및 경영환경 전망”이라는 주제 아래 경영자 세미나를 진행했다.

정문건 원장은 강연을 통해 “올해 국내 경영의 화두는 리스크 관리와 미래성장동력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히면서 “경제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경영을 실천해 나가자”고 전했다.



▲ (사)한국포장협회 신년하례회 개최

(주)코오롱
태양전지용 필름 독일 공급 계약
 오스트리아 이소볼타와도 계약 추진

(주)코오롱(대표이사 배영호)은 태양전지 모듈의 배면시트에 쓰이는 폴리에스터(PET) 필름을 독일 태양광 소재 기업 크렘펠(KREMPEL)에 장기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코베메사와의 계약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에 체결된 물량을 합치면 태양전지 모듈 배면시트 부문 매출이 올해 1백억원, 2009년 2백억원, 2010년 3백억원으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은 이밖에도 오스트리아 이소볼타(ISOVOLTA)와도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배면시트는 태양전지용 셀을 보호하는 필름으로 외부 충격과 부식을 막아주고 불순물이 침투하는 것을 차단해준다.

(주)오리온
제품혁신안 '닥터유 프로젝트' 발표
 친환경 포장재 전 제품에 적용

(주)오리온(대표이사 김상우)이 몸에 좋지 않은 성분들을 빼고 부족한 영양소를 더하는 '영양 밸런스'에 초점을 맞춘 제품혁신안인 '닥터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리온은 지난 달 21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차세대 가공식품 비전을 제시하는 제품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제과업계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리온은 지난 1년간 서울대 가정의학과 유태우박사의 국민건강팀과 '닥터유 프로젝트'(Dr. You Project)를 공동 진행해 자사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초코파이, 오징어땅콩, 카스타드 등 8종을 대대적으로 리뉴얼하는 한편, 신제품 3종을 출시했다.

이 기준이 적용된 제품에는 '닥터유 프로젝트 마크'가 부착된다.

이번 프로젝트와 함께 오리온은 식품업계 최초로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최소화시킨 '그린패키지'를 모든 제품에 적용해 걸포장까지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오리온의 혁신 프로젝트는 지난 2001년부터 세계적인 트랜스지방연구소인 스웨덴의 아루스칼삼(AAK)연구소와 공동연구로 시작됐다. 이를 통해 오리온은 전 제품의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저감화해 왔다.

오리온은 이번 프로젝트 후속조치로 앞으로 천연원료로 통밀을 적용한 신제품을 2월에 선보이는 등 영양과 안전, 건강을 중심으로 한 제품개발에 전력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대 유태우 박사는 "오리온이 발표한 제품혁신 단계는 아직 내가 기대하는 절반 수준"이라며 "더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을 국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식품업계에 계속 이 같은 수준의 제품생산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리온 김상우 대표이사는 “오리온의 혁신은 이번 3단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공식품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는 신뢰가 쌓일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제과업계의 진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고부가 기술농 육성' FTA 대응
 포장디자인 및 용기금형 개발비 지원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한-미 FTA 등으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화와 급변하는 세계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농산업의 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 기술농 육성』 사업을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년간 60억원을 투자하여 총 30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부가 기술농』이란, 남과 다른 기술과 아이디어로 생산, 가공, 유통의 차별화를 통해 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재배생력화 및 자동화 농업, 에너지 절약형 시설을 이용한 경영비 절감 기술농업, 남이 하지 않는 특이한 품종 재배 및 재배방법을 도입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블루오션 농업, 건강·기능성을 가미한 차별화된 상품으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농식품산업 등을 말한다.

도는 고부가 기술농 육성을 위하여 육성 가능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농산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은 물론 포장디자인 및 용기금형 개발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 첫해인 올해에는 9개소가 신청하여 엄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 3개소가 선정 되었다.

지원대상은 포항의 친환경 발효사료 이용 고품질 축산물 생산, 상주의 친환경 발아현미 누룽지 생산, 칠곡의 헛개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육계 생산 사업이며 사업추진 상황을 밀착 관리하고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고부가기술농 육성사업의 표준모델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북도 이태암 농수산국장은 “지난 해에 이미 FTA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제도·재정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로 FTA를 극복 할 수 있도록 고부가 기술농 육성, 부자마을 만들기 등과 같은 신성장 동력 사업을 적극 발굴·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시
유통혁신 자립농정 실현
 유통 촉진 위해 포장재 40만매 공급

제주시는 올해 농정비전을 ‘유통혁신과 소득안정화로의 자립농정 실현’으로 정하고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6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제주시는 웰빙시대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친환경 고품질 농식품의 안정 공급을 위한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47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저온유통체계에는 주산지별로 규모화·현대화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3개소와 고부가 가치 신선 농산물 안정공급을 위한 농산물 저온